

■ 논문 ■

## 웅진도독부의 대외정책 검토\*

박민경

### I. 머리말

웅진도독부는 당이 백제를 멸망시킨 후 백제고토를 다스리기 위해 설치한 당의 기미지배 체제이다. 기미란 고삐를 느슨하게 잡되 관계를 끊지 않는다는 것으로 군사적 정벌이나 군현화의 강제나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인신지배의 강요 등의 배제를 의미한다.<sup>1)</sup> 따라서 당은 도독부를 설치한 후 이민족의 수장이나 유력자를 都督 및 刺史·縣令 등으로 임명하여 다스리게 하는 하였다. 웅진도독부의 운영 역시 백제의 왕자였던 扶餘隆과 관료들을 웅진도독 및 장사·현령으로 임명하여 다스리게 하면서도 당 본국인인 劉仁軌와 劉仁願을 ‘鎮將’ ‘郎將’ ‘帶方州刺史’ 등의 직책으로 백제고토에 머무르게 하고 웅진도독부를 통한 대외정책 등에서 일정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당 본국인과 백제계 관료가 함께 운영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는 웅진도독부의 활동양상 및 그에 따른 성격규정은 당의 한반도 지배전략의 측면에서 파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B5A07091165).

1) 김한규, 『天下國家』 (서울: 소나무, 2005), 121쪽.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일본학계는 일·당간 교섭 및 우호관계 회복여부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초기 연구자로는 池内宏을 들 수 있는데 그는 도독부의 위치 고증 및 일·당 간의 교섭여부 및 목적에 집중하였고, 특히 일·당의 교섭 목적은 ‘百濟領의 안전을 주안으로 하는 修睦’을 위한 것으로 파악하였다.<sup>2)</sup> 鈴木靖民은 웅진도독부(당) 측의 왜국교섭 목적은 국교회복에 있었으나 왜국 측은 이에 반해 소극적이었으며, 668년 이후 왜국에 사신을 파견한 ‘백제사’는 당·신라에 대항하는 백제유민이 보낸 것으로 보았다.<sup>3)</sup> 松田好弘 역시 왜국은 당과의 관계에 소극적으로 임하였다고 파악하였다.<sup>4)</sup> 반면 森克己와 鬼頭清明 등은 일·당 간에 화친이 이루어졌다고 보았으며,<sup>5)</sup> 新藏正道는 왜국이 당과의 수교 회복을 지향하면서도 결국 신라와 결부하는 방향으로 외교 기조가 변하였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sup>6)</sup>

한국학계의 경우 웅진도독부의 구성과 운영에 초점을 맞춘 연구와 이 시기의 성격을 규명한 연구로 대별할 수 있다. 전자는 이도학의 연구로, 웅진도독부의 조직구성에 주목하여 668년 이후로 도독부의 실질적 운영은 백제계 관료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였고 唐人 관료와 唐軍은 고문역 내지 치안의 보조적인 기능만을 수행하였다고 보았다.<sup>7)</sup> 후자는 먼저 김수태, 이재석 등으로 웅진도독부 시기의 성격을 규명하여 웅진도독부의 부여유체제를 백제 부흥운동의 일환으로 보았고,<sup>8)</sup> 김수미는 웅진도독부의

2) 池内宏, 「百濟滅亡の後動亂及び唐·羅·日三國の關係」, 『滿鮮史研究』上第二冊(東京:吉川弘文館, 1960).

3) 鈴木靖民, 「百濟救援の役後の日唐交渉」, 『日本の古代國家形成と東アジア』(東京:吉川弘文館, 2011).

4) 松田好弘, 「天智朝の外交について」, 『立命館文學』, 415-416-417(1980).

5) 森克己, 『遣唐史』(至文堂, 1955): 鬼頭清明, 「七世紀後半の國際政治史試論-中國·朝鮮三國·日本の動向」, 『朝鮮史研究會論文集』, 7(1970).

6) 新藏正道, 「‘白村江の戰’後の天智朝外交」, 『史泉』, 71(1990).

7) 이도학, 「웅진도독부의 지배조직과 대외정책」, 『백산학보』, 34(1987): 『새로 쓰는 백제역사』(서울: 푸른역사, 1997).

8) 김수태, 「웅진도독부의 백제부흥운동」, 『백제부흥운동사연구』(서울: 서경, 2004): 「웅진도독부의 백제부흥운동 재론」, 『백제학보』, 25(2018): 양종국, 『백제 멸망의 진실』(서울: 주류성, 2004): 이재석, 「7세기 후반 백제부흥운동의 두 노선과 왜국의 선택」, 『백제연구』, 57(2013): 조

지배구조 및 이에 대한 백제유민의 인식변화 등의 연구를 통해 도독부의 인적 구성이 백제인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당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고 보았다.<sup>9)</sup> 박지현은 웅진도독부에서 扶餘隆이 행한 역할은 665년 취리산 맹약에서의 명분용으로 한정되었고, 劉仁軌과 劉仁願과 같은 당의 장군들이 주도적으로 행하였다고 파악하였다.<sup>10)</sup> 최근에는 666년에 행해진 당의 봉선의례와 관련하여 웅진도독부의 대외관계를 파악한 견해도 제기되었다.<sup>11)</sup>

이상의 연구성과는 당의 백제고토 지배를 위해 설치된 웅진도독부의 지배구조와 운영 및 대외정책을 파악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준다. 그러나 일본학계의 경우 당의 대외교섭 의지만이 天下國家지나치게 강조되어 웅진도독부의 한 축이었던 백제계 관료들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였다. 한국학계의 경우 웅진도독부의 구조 등에 대한 규명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웅진도독이었던 부여융과 백제계 관료들의 활동 및 그 성격을 둘러싸고 백제 부흥운동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할 수 있는가에 대해 여러 견해가 병존하고 있다. 대외정책은 한 나라의 정책방향을 구조적으로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웅진도독부가 당의 지배기구이고 여기에 ‘진장’이라는 군사적 성격을 지닌 唐人도 참여하였지만, 백제계 관료들 역시 한 구성원으로서 도독부의 대외정책에 함께 참여하였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대외정책이다. 웅진도독부 체제가 성립되는 664년부터 한반도에서 축출되는 671년까지 7회에 걸쳐 왜국에 사신단을 파견하였는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웅진도독부 소속의 ‘백제계 관료’들의 역할이다. 백제진장이었던 유인원이 668년에

범환, 「웅진도독 부여융의 대신라정책에 대한 검토」, 『한국고대사탐구』, 25(2017).

9) 김수미, 「당과 백제유민의 웅진도독부 인식의 변화」, 『한국민족문화』, 42(2012) : 김영관, 『백제부흥운동사』 (서울: 서경, 2015).

10) 박지현, 「웅진도독부의 성립과 운영」, 『한국사론』, 59(2013) : 「백강구 전투 이후 부여융의 행적과 웅진도독부의 운영」, 『역사와 현실』, 105(2017).

11) 이성제, 「唐 高宗의 泰山 封禪과 高句麗의 大應을 둘러싼 몇 가지 문제」, 『고구려발해연구』, 64(2019) : 서영교, 「熊津都督府의 對倭交渉과 乾封(666) 封禪」, 『동아시아고대학』, 55(2019).

한반도에서 축출된 이후로는 대외외교는 이 백제계 관료들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백제부흥운동이 진압된 이후 웅진도독부 소속 당 관료로서 백제고토로 복귀한 이른바 ‘친당적’ 세력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sup>12)</sup> 기본적으로는 이들은 ‘백제인’이었다. 이 백제계 관료들은 웅진도독부가 백제고토에서 축출되는 671년까지 대외정책에 관여하고 있는데, 특히 668년 이후에는 웅진도독부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백제’라는 모국명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비록 뒤에는 당의 위세에 기반하는 한계가 존재하였지만, 백제계 관료의 시각에서 대외전략을 분석한다면 이 시기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II장에서는 웅진도독부 체제의 성립시기를 부흥운동의 종식과 함께 살펴보고, III장과 IV장에서는 웅진도독부의 대외정책을 당 본국인과 함께 한 시기와 백제계 관료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한 시기로 나누어 그 역할과 목적을 살펴본다.

## II. 백제 부흥운동의 종식과 웅진도독부 체제의 성립

660년 나당연합군은 백제의 수도인 泗泌城과 義慈王이 피신한 熊津城마저 공격함으로써 백제의 항복을 받아내었다. 이어 당은 백제고토에 5개의 도독부를 두고 백제 측의 수장 및 토착세력들을 都督·刺史·縣丞으로 삼아 다스리고자 하였다.<sup>13)</sup> 정복지에 대한 간접지배 방식인 기미지배체제를 시행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당의 구상대로 실제로 현지인을 통한 간접지배라는 방식이 백제고토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蘇定方이 의자왕 등을 거느리고 당으로 귀환한 직후 바로 백제고토 전역에서 부흥운동이 발생하였기 때문이었다. 부흥운동이 단시일 내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당의 ‘고구려를 멸망시키고자 한다면 먼저

12) 이재석, 「7세기 후반 백제부흥운동의 두 노선과 왜국의 선택」.

이재석은 웅진도독부 체제에서 활동한 부여음을 비롯한 백제계 관료들의 활동을 당의 백제고토 지배정책의 논리구조가 아닌 그들의 시각에서 평가해 볼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들의 활동을 또 하나의 백제부흥운동 즉 친당 백제부흥운동의 시작으로 파악하고 있다.

13) 『구당서』 권199상 「열전」 149상 백제전.

백제를 정벌해야 한다(欲吞滅高麗 先誅百濟)<sup>14)</sup>는 우회전략이 결정적 이유였다고 생각된다. 즉 당은 이 전략에 따라 수도인 사비성의 함락에만 집중하였는데 이는 역으로 사비성을 제외한 그 외 지역이 피해를 입지 않아 백제부흥군이 결집할 수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에 당은 전략을 수정하여 초대 웅진도독으로 당 본국인인 左衛郎將 王文度を 임명하였다.<sup>15)</sup> 그의 임명은 당시 백제부흥군이 흥기하여 도호부가 있는 사비마저도 위협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웅진성을 장악하고 사비의 유인원을 도와 백제부흥군을 진압하여 백제고토 장악의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었다.<sup>16)</sup> 왕문도는 이전 賀魯 정벌군에서 부대총관을 맡았을 정도로 경험 많은 무장이었기 때문에,<sup>17)</sup> 그가 거느리고 온 당군과 함께 웅진성의 진수를 담당하게 하였던 것이다.<sup>18)</sup> 그러나 웅진도독에 임명되었던 왕문도는 백제에 도착한 직후 돌연 사망하여 그 임무 및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sup>19)</sup>

한편 당의 주력군이 철수한 후 羅唐留鎮軍과 백제부흥군은 사비성을 둘러싸고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거듭하였다. 백제부흥군이 사비의 南嶺에 柵을 세워 근거지로 삼고 주변의 성읍을 초략하여 20여 성들의 합류를 이끌어 내자, 신라군은 王興寺岑城을 공격하여 부흥군의 기세를 꺾는데 주력하였다.<sup>20)</sup> 661년 3월에 들어와 백제부흥군이 재차 사비성을

14) 『구당서』 권84 「열전」 34 유인케전.

15)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 6 의자왕 20년조.

16) 박지현, 「웅진도독부의 성립과 운영」, 90-91쪽.

17) 박지현, 같은 논문, 91쪽.

18) 왕문도가 웅진도독으로 임명되어 백제고토로 들어올 때 어느 정도의 병력을 거느리고 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661년 3월에 유인케를 대방주자사로 발탁하여 왕문도의 군사 [원문에는 衆] 를 거느리고 신라의 군사를 징발하여 유인원을 구원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자치통감』 권21 「당기」 16 고종 용삭 원년 3월조).

19) 왕문도의 사망에 대해 「백제본기」에서는 바다를 건너다가 죽자 유인케가 대신하였다고 나오나 「신라본기」에는 왕문도가 도착 후 삼년산성에서 황제의 조서를 전하다가 갑자기 병이 나서 사망했다고 나온다.

20)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 5 태종무열왕 7년 9월·10월·11월조.

공격해오자 당은 劉仁軌를 파견하여 熊津江口에서 부흥군을 격파하고 劉仁願의 당군을 구원하게 하였다.<sup>21)</sup> 이처럼 당이 백제를 멸망시켰다 하더라도 백제부흥군의 파상적인 공세로 인해 나당군의 유진본영이었던 사비성의 방어조차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결국 당군은 유진본영을 사비성에서 웅진성으로 옮겼는데, 그 시기는 대략 유인궤의 구원이 이루어진 661년 3월 이후부터 662년 정월 이전으로 추정할 수 있다. 662년 당 고종이 유인궤에게 여의치 않으면 당군을 귀환시켜도 된다는 내용의 칙서를 보내자, “지금 평양에 있던 군사들이 이미 돌아갔는데 웅진에서 또 발을 빼면 백제의 남은 무리들이 곧 다시 일어날 것이다. 고려의 逋藪들을 언제 멸망시킬 수 있을 것인가?”<sup>22)</sup>라고 한 언급이 있다. 평양의 군사가 이미 돌아갔다는 것은 662년 정월 소정방의 평양 공격이 큰 눈으로 인해 성과 없이 물러난 것을 의미하는데,<sup>23)</sup> 고구려 공격이 실패한 상황에서 웅진성의 당군마저 철수한다면 백제가 다시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고구려의 정토도 어려워질 것임을 병사들에게 호소한 것이다. 여기서 유인궤의 당군은 661년 3월 이후에 사비성에서 나왔고 소정방 부대가 평양을 공격한 시점인 적어도 662년 정월 이전에는 이미 웅진성에서 진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24)</sup> 결국 당 유진군은 사비성에서 나와 방어를 유리한 웅진성으로 옮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웅진성에 진수한 유인궤·유인원의 당군은 전열을 정비하여 662년 7월 支羅城·尹城·大山柵·沙井柵 등의 공격을 시작으로 8월에는 眞岷城을 함락시켜 신라의 군량 수송로를 확보하였고, 663년에 들어와 신라군은 백제부흥군에 대한 공격 방향을 남방으로 돌려 居列城·居勿城·沙平城 등을 공격하여 장악한 후 북상하여 논산의 德安城까지 함락시켰다.<sup>25)</sup> 5

21) 『구당서』 권199 「열전」 149상 백제전.

22) 『자치통감』 권200 「당기」 16 고종 용삭 2년 추7월조.

23) 『삼국사기』 권22 「고구려본기」 10 보장왕 21년 정월조.

24) 이도학은 웅진성으로의 이동시점을 660년으로 파악하고 있으며(이도학, 「웅진도독부의 지배조직과 대외정책」, 84쪽) 박지현은 662년 7월 이전에 옮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박지현, 「웅진도독부의 성립과 운영」, 88쪽).

25) 『자치통감』 권200 「당기」 16 고종 용삭 2년 추7월조 및 『삼국사기』 권 6 「신라본기」 6 문무왕 3년 2월조.

도독부 중의 하나였던 덕안 지역을 신라가 663년에 공격하여 함락시킬 때까지 당군이 장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당의 백제고토 지배전략이 결국은 처음부터 실패하여 구상하였던 5도독부 체제가 663년 초까지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sup>26)</sup> 한편 신라군이 663년 백제의 남방을 공격한 후 덕안성을 함락시킬 때 백제부흥군의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았는데, 이 지역 세력들이 형세가 기울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더 이상 백제부흥군에게 협조하지 않았음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였다.<sup>27)</sup> 유인케는 이 여세를 몰아 본국에 증원군을 요청하였고, 당은 663년 孫仁師에게 淄州 등의 군사 7천을 거느리고 가게 하였다.<sup>28)</sup> 백제부흥군 역시 병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663년 왜국에 구원군을 요청하였고 이에 왜국은 2만 7천명의 구원군을 파병하였다.<sup>29)</sup> 663년 8월, 2일간에 걸친 白村江 싸움에서 바닷물이 모두 붉게 물들었다고 할 정도로 당군은 왜국의 구원군을 대파하였다. 백촌강 전투에서의 당의 승리는 백제의 부흥운동이 막을 내리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였고 결국 663년 11월에는 끝까지 저항하였던 임존성도 항복하였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663년 당이 孫仁師의 증원군을 파견할 때, 의자왕의 아들인 扶餘隆도 兵糧船의 수장으로 삼아 백제고토로 귀환시켰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백제고토에서의 전황이 고려된 것으로 생각된다. 철수까지도 생각할 정도로 고립되어 있던 당군이 유인케의 활약과 신라군의 공격으로 백제고토에서 점차 勝機를 되자, 당은

26) 기존의 연구에서도 백제부흥군의 흥기로 인해 5도독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인식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池內宏, 「百濟滅亡の後動亂及び唐·羅·日三國の關係」, 101-102쪽; 이도학, 「웅진도독부의 지배조직과 대외정책」, 82-83쪽; 노중국, 『백제부흥운동사』 (서울: 일조각, 2003), 291쪽; 김영관, 『백제부흥운동연구』 (서울: 서경, 2005), 171-172쪽; 김중복, 「백제와 고구려 고지에 대한 당의 지배양상」, 『역사와 현실』, 78(2010), 75-76쪽). 한편 박지현은 당이 1도호부 5도독부 체제를 마련하고 왕문도 등의 웅진도독 임명사실로 보아 백제고토 전역에 대한 지배체제로서 5도독부의 설치가 시도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박지현, 「웅진도독부의 성립과 운영」, 92-93쪽, 주 78).

27) 노중국, 『백제부흥운동사』, 244-245쪽.

28) 『자치통감』 권200 「당기」 16 고종 용삭 2년 추7월조.

29) 『일본서기』 권27 천지 2년 2월조.



백제부흥군 진압 이후의 고구려 정벌을 위한 지배전략을 다시 세웠던 것이다. 그 전략으로 먼저 당은 663년 4월 신라를 계림대도독부로 삼고 문무왕을 계림주대도독으로 임명하였다.<sup>30)</sup> 이는 신라도 당의 기미체제에 편입시킴으로서 후방기지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백제고토가 안정화 된 후의 신라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였다. 주지하듯이 648년 당 태종과 김춘추 간에 ‘평양 이남의 지역은 신라가 장악하는’ 협약을 맺었다.<sup>31)</sup> 이 협약에 의한다면 당은 신라에게 백제고토에 대한 지배권을 넘겨야 했다. 그러나 당에게는 최종목표였던 고구려 정토문제가 남아있었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백제고토의 안정화 및 신라가 백제부흥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차지한 영역문제도 선결과제였다. 때문에 당은 먼저 그 사전작업으로서 신라를 당의 지배체제 안으로 편입시키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신라가 마음대로 백제고토를 침범하는 일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였고, 이후 백제의 왕자였던 부여융을 한반도로 귀환케 하여 그의 존재를 부각시킴으로서 백제부흥운동 종식 후의 상황에 대비하였던 것이다.

이에 신라는 663년 杜大夫가 ‘평정을 마친 후 맹약을 맺도록 하라’는 고종의 칙명을 전달하자 任存城이 함락되지 않은 것을 들어 거부함으로써 당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반발하였다.<sup>32)</sup> 그러나 당은 고구려 정토라는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라와의 회맹을 재차 추진하는 한편 신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당이 운영하는 도독부의 지배영역을 축소하지 않을 수 없었다. 664년 2월의 응령 맹약 및 665년 8월 취리산 회맹을 통해 웅진도독부와 신라 간에 획정된 강역이 1도독부 7주 51현으로 백제고토의 서쪽 지역에 한정된 것을 보면,<sup>33)</sup> 신라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였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 백제고토의 절반이나마 영역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협상이 웅진도독부를 통해

30)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 6 문무왕 3년 4월조.

31)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7 문무왕 11년 답설인귀서.

32)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7 문무왕 11년 답설인귀서.

33) 千寬宇, 「馬韓諸國의 位置試論」, 『東洋學』, 9(1979), 220-223쪽 : 이도학, 「웅진도독부의 지배조직과 대외정책」, 87-88쪽.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 도독부 체제의 실질적 성립은 웅령 맹약이 이루어지는 664년 2월에 이전에 이루어졌으며 부여융이 664년 10월 웅진도독에 제수됨으로써,<sup>34)</sup> 표면적으로나마 기미체제의 본질인 점령지의 수장층을 도독 및 자사로 임명하여 다스리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III. 백제진장 유인원 주도의 대외정책 : 664~667년의 시기

당은 663년 8월 백촌강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주류성과 마지막까지 저항하였던 임존성마저 진압한 후 백제고토에 대해 민심을 수습하면서 본격적으로 웅진도독부 체제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웅진도독부는 64년 2월 신라와 웅령에서 회맹한 후 그해 4월에 대외정책을 추진하여 郭武惊을 처음으로 파견하였다.

- A-1. (천지 3년, 664년) 여름 5월 무신삭 갑자(17일)에 백제진장 유인원이 조산대부 郭武惊 등을 보내 표함과 헌물을 바쳤다. 겨울 10월 을해삭(1일)에 광무종 등을 돌려보내라는 칙을 내렸다. 이날 中臣內臣은 사문 智祥을 보내 광무종 등에게 물건을 주었다. 무인(4일)에 광무종 등을 향응하였다. 12월 갑술삭 을유(12일)에 광무종 등이 일을 마치고 돌아갔다.<sup>35)</sup>
2. 천지천황 3년 4월 大唐客이 내조하였다. 大使 朝散大夫 上柱國 郭武惊 등 30인과 백제좌평 禰軍 등 백여 인이 對馬島에 도착하였다. 大山 中 采女 通信, 승려 智弁 등을 보내 별관으로客을 불러 들었다. 이에 지변 등이 表書와 헌물을 가지고 왔는가를 물으니, 사인은 장군의 牒書 1함과 헌물을 가지고 왔다고 하였다. 그리고 첩서 1통을 지변 등에게 주니 주상하였다. 단지 헌물은 檢看해야 해서 가져가지 않았다. 9월 大山 中 津守連吉祥·大乙中伊岐史博「大山中 伊岐史博」, 승 지변 등이 筑紫 大宰의 말을 청하여 (실은 칙지이다)客에게 고하기를 “지금 객 등이 온

34) 『구당서』 권84 「열전」 34 유인래전.

35) 『일본서기』 권27 천지 3년 5월조.

상황을 보니 천자의 사인이 아니고 백제진장의 私使이다. 또한 가져온 바의 文牒도 執事의 사사로운 말을 올린 것이다. 때문에 사신은 입국을 할 수 없고 문서 또한 조정에 올릴 수 없다. 객 등은 스스로 섬겨서 온 것이기 때문에 대략 말로서 주상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12월에 博德은 객 등에게 첩서 1함을 주었는데, 함에는 鎭西將軍이라고 쓰여 있었다. “日本 西筑紫大軍이 在百國大唐行軍總管에게 보내는 첩이다. 使人 朝散大夫 郭武棕 등이 왔는데, 가지고 온 첩의 뜻과 취지를 살펴보고 생각하니 이는 천자의 사자가 아니고 또한 천자의 문서가 아니다. 이는 오직 총관의 사자이고 執事의 첩이라 할 수 있다. 첩은 私意이기 때문에 오직 말로써 아될 것이다. 사람들은 公使가 아니기 때문에 입경할 수 없다고 하였다.”라고 云云하였다.<sup>36)</sup>

사료 A-1은 664년 5월 백제진장 유인원이 곽무중 등을 파견한 내용이다. 사절단이 10월 1일에 돌아가라는 칙을 받은 그날 中臣內臣이 곽무중 등에게 선물을, 4일에는 향응을 베풀어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12월 12일에 곽무중 등은 귀국하였다고 한다. A-2는 『善隣國寶記』에 실린 「海外國記」로, 664년 곽무중 등 사절단의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전하고 있다. 곽무중 등 당인 30인과 백제좌평 예군 등 백여 명은 664년 4월에 對馬에 도착하여 첩서를 올렸다. 9월에 이르러 筑紫大宰가 ‘곽무중 등은 당 천자의 使者가 아닌 백제진장의 사사로운 사자이고, 가지고 온 첩 역시 집사의 첩이기 때문에 입경할 수 없고 조정에 올릴 수도 없다고 전하고 있다. 다만 문장 말미에 첩의 내용은 말로 조정에 알리겠다 [원문:口奏] 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에 의하면 곽무중 등의 사절단은 對馬에 7~8개월간 머무르며 왜국 측의 답변을 기다렸으나, 왜국 측은 이 사신단과 가지고 온 첩은 천자의 사자도 아니고 천자의 문서도 아니기 때문에 입경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하였던 것이다.

筑紫大宰의 말을 칭하여 전하는 것을 두고 당시 왜국의 대응이 백제진장에

36) 『善隣國寶記』 所引 「海外國記」(日本古典文學大系68 『일본서기』 하 (岩波書店 刊行) 補注 26-5 (577-578쪽)에 실린 「해외국기」의 원문을 인용하였음).

대해 대재부 레벨에서 상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고, 이를 통해 당 황제와 왜국 천황을 대등한 관계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대당외교의 기초를 엿볼 수 있다고 파악한 견해가 있다.<sup>37)</sup> 그러나 이때의 불허방침은 왜국의 당에 대한 대등의식의 결과가 아니라 백촌강 패전 후 당에 대한 대외적 위기의식이 높아져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당시 왜국 측의 최고 실권자였던 中臣鎌足이 직접 나서서 이 사절단에게 物을 하사하고 향응을 베풀고 있다는 점에서 유추할 수 있다. 즉 공식적으로는 입경을 불허하였지만 당과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筑紫大宰의 말로 전함으로써 탈출구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sup>38)</sup> 한편으로는 中臣鎌足이 물밑에서 사신단과 실질적 협상을 주도함으로써 당(웅진도독부)의 관계개선의 여지를 만들었던 것이다.<sup>39)</sup>

그렇다면 中臣鎌足과 곽무종이 협상한 내용, 즉 곽무종이 도왜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이에 대해 기존의 연구에서는 당의 고구려 정벌을 위한 외교활동의 필요성을 전제로 하여 당이 지배하는 백제고지의 안전을 주안으로 하는 화친이 목적이었다고 파악하고 있다.<sup>40)</sup> 이러한 선편의

37)鈴木靖民, 『日本の古代國家形成と東アジア』(東京:吉川弘文館, 2011), 164-165쪽.

38)김은숙, 「백제부흥운동 이후 天智朝의 국제관계」, 『일본학』, 15(1995), 151-152쪽.

39)한편 中臣鎌足의 곽무종 등의 사절단 접촉에 대해 기존의 연구에서는 그의 아들인 定慧의 귀국을 위한 협상으로 파악하고 있다.(김은숙, 앞의 논문, 154쪽: 연민수 외, 『역주일본서기』 I·II·III(서울:동북아역사재단, 2013) 347쪽의 주 117: 서영교, 「熊津都督府의 對倭交渉과 乾封(666) 封禪」, 『동아시아고대학』, 55(2019), 304-310쪽. 특히 서영교는 666년 정월에 행해지는 봉선의례에 왜국을 참가시키기 위해 정혜의 귀국을 조건으로 하여 협상을 벌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中臣鎌足의 아들인 정혜의 귀국 문제도 논의의 대상이었겠지만, 당시 천지조의 실권자였던 中臣鎌足의 정치적 위상을 생각한다면 곽무종 등과의 접촉을 개인의 사적인 이유로만 결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40)池内宏, 「百濟滅亡の後動亂及び唐·羅·日三國の關係」, 206쪽:鈴木靖民, 『日本の古代國家形成と東アジア』, 167-168쪽:新藏正道, 「白村江の戰, 後の天智朝外交」, 『史泉』, 71(1990), 11쪽. 한편 이재석은 664년 곽무종의 과건목적은 왜국과의 관계회복을 통하여 고구려와 직접 연계하는 일을 견제하고, 백제고토에서의 친당백제 정권의 발족을 알려 왜국과 우호관계의 수

견해는 664년의 사절단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준다. 다만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사절단의 체류기간과 백제계 관료가 백여 명이나 파견되었다는 점이다. 먼저 체류기간이다. 광무종 등의 체류기간은 7~8개월 정도인데, 그 이후의 사신이 길게는 2개월, 짧게는 3일 만에 귀국하고 있는 점에서 664년 사절단이 이례적으로 길게 체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양국 간에 협의해야 할 사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664년의 사신단에 대해 666년에 행해질 당 고종의 봉선의례에 참가를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었다.<sup>41)</sup> 당 고종의 봉선의례 조서는 664년 7월에 내려졌는데, 이 의례의 거행에는 주변국의 참가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이 조서와 별도로 당은 주변국들에게 봉선계획을 알렸을 것이고 그 구체적인 사례가 광무종의 파견이라는 것이다.<sup>42)</sup>

이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긴 체류기간과 664년 사절단에 백제계 관료들이 파견된 것도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다. 당(웅진도독부)은 대외적으로는 고구려 정벌을 위한 후방기지로써 백제고토의 안정화와 대내적으로는 당 황제의 통치능력을 만방에 알려 그 권위를 신성화시키는 봉선의례 성공적 개최라는 과제가 있었다. 특히 후자의 성공에는 주변국, 즉 제번의 참가는 필수적이었다.<sup>43)</sup> 이러한 대내외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백제에 구원군을 파견하였던 왜국과의 관계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었다. 이에 당(웅진도독부)은 백제계 관료들을 동원하였다. 즉 당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백제고지를 재건하여 백제민들의 안정화를 추진하였고, 신라와의 맹약을 통해 신라가 백제를 더 이상 침략하지 못하도록 경계한 조치 등을 백제계 관료들을 통해 선전하게 하였던

---

립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이재석, 「7세기 후반 백제부흥운동의 두 노선과 왜국의 선택」, 『백제연구』, 57(2013), 223쪽). 김은숙 역시 당은 왜국과 수호관계를 맺어 당 중심의 국제질서에 편입될 것을 요구하고 고구려와는 동맹관계를 끊을 것을 요구하였다고 보고 있다(김은숙, 「백제부흥운동 이후 天智朝의 국제관계」, 149쪽).

41) 이성제, 「唐 高宗의 泰山封禪과 고구려의 대응을 둘러싼 몇 가지 문제」, 『고구려발해연구』, 64(2019) : 서영교, 「熊津都督府의 對倭交渉과 乾封(666) 封禪」.

42) 이성제, 같은 논문, 210-211쪽.

43) 이성제, 같은 논문, 210쪽 : 서영교, 같은 논문, 310쪽.

것이다. 당의 이러한 의도에 대해 백제계 관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 다만 부흥운동을 주도했다가 왜국으로 망명한 세력들이 天智朝의 지배세력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백제계 관료들이 왜국 측의 경계심을 풀기가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7~8개월이라는 긴 체류는 이러한 상황에서 연유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여하튼 당(웅진도독부)의 이러한 노력이 받아들여져 664년의 사절단은 공식적으로는 입경을 허가받지는 못했지만 당시 실권자였던 中臣鎌足과의 이면 협상을 통해 왜국 측에게 봉선의례의 참가를 요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왜국 측 역시 광무종 등의 사절단에 대해 천자의 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를 내세워 경계심을 드러내면서도 中臣鎌足을 내세워 협상을 진행하였지만, 왜국 측의 경계심은 여전히 존재하였던 듯하다. 그해 對馬島, 壹岐島, 筑紫國 등에 防人과 봉화를 두었고 筑紫에는 水城을 쌓아 방어체제를 구축하였기 때문이다.<sup>44)</sup> 그렇다면 이 664년의 사절단과의 협상에서 왜국 측이 얻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B-1. (천지 4년, 665년) 9월 경오삭 임진(23일)에 唐國이 朝散大夫 忻州 司馬 上柱國 劉德高等을 보냈다 [等은 右戎衛郎將 上柱國 百濟禰軍과 朝散大夫 柱國 郭武棕을 말한다. 모두 254인이었다. 7월 28일에 對馬에 왔고 9월 20일에 筑紫에 왔다. 22일 표함을 올렸다]. 겨울 10월 기해삭 기유(11일)에 성대하게 菟道에서 열병하였다. 11월 기사삭 신사(13일)에 유덕고 등에게 향응하였다. 12월 무술삭 신해(14일)에 유덕고에게 物을 하사하였다. 이 달에 유덕고 등이 일을 마치고 돌아갔다.<sup>45)</sup>

2. (천지 4년, 665년) 이 해에 小錦 守君大石 等を 대당에 보냈다. 云云 [等은 小山 坂合部連石積, 大乙 吉士岐彌, 吉士針間을 말한다. 생각건대 당의 사신을 배웅한 것인가].<sup>46)</sup>

44) 『일본서기』 권27 천지 3년 시세조.

45) 『일본서기』 권27 천지 4년 9월-12월조.

46) 『일본서기』 권27 천지 4년 시세조.

사료 B-1은 665년에 당 본국인 劉德高가 왜국에 사신으로 온 내용이다.<sup>47)</sup> 여기에는 전년도 사신단이었던 곽무종과 백제 예군뿐만 아니라 中臣鎌足の 아들인 定慧의 귀국도 포함되어 있었다.<sup>48)</sup> 665년의 사절단에서 주목되는 점은 사절단의 규모라든가 형식적인 면이 전해인 664년과는 달라졌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왜국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즉 당 고종이 파견하는 형식으로 당 본국인인 劉德高를 파견한 점, 그 편에 천자의 첩도 갖춘 점, 사신단의 규모 역시 664년보다 약 2배 많은 수를 보낸 점 등에서 ‘천자의 사자도, 천자의 첩도 아니다’는 왜국 측의 불만을 665년의 사절단에서는 모두 해소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절단의 달라진 양상은 664년의 사절단과의 협상에서 협의된 내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당(웅진도독부)은 왜국과의 관계개선을 전제로 하여 봉선의례의 참가를 요구하였고 왜국 측은 이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백제진장이 아닌 당 황제가 파견하는 형식을 갖추기를 요구하였던 것이다. 왜국이 이러한 형식에 집중하였던 이유는 대외정책의 실패와 연관된 것으로 생각된다. 즉 나당연합군과 백제의 대립이라는 국제정세 속에서 왜국이 선택한 대외노선, 즉 백제구원책이 실패로 돌아가고 그로 인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자 이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으로 당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당과의 전쟁에서는 패전국이었지만 당 황제가 화친을 위해 먼저 요청해 왔음을 부각시킨다면, 왜국 측으로서는 대외노선의 실패를 만회하고 권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정치적 선전효과가 크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백제진장 명의의 사절단에 대해서는 입경을 불허하였지만,

47) 665년 유덕고의 파견목적에 대해 기존의 연구에서는 666년에 열리는 봉선의례에 왜국의 참가를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김은숙, 「백제부흥운동 이후 天智朝의 국제관계」, 158쪽; 山尾幸久, 『古代の日朝關係』(東京: 塙書房, 1989), 426-427쪽; 정효운, 「天智朝의 對外政策에 대한 一考察」, 『한국상고사학보』, 14(1993), 222-223쪽). 그러나 유덕고의 파견 목적을 봉선 참가요청으로 볼 경우, 서영교의 지적처럼 유덕고의 대마도 도착시점(7월 28일)을 고려해볼 때 유인계가 거느리고 동도로 나아갔다는 4국 추장의 무리에는 시간상 참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서영교, 「熊津都督府의 對倭交渉과 乾封(666) 封禪」, 294-295쪽).

48) 『일본서기』 권25 백지 5년 2월조.

물밑 접촉을 통해 양국이 서로 원하는 타협안을 찾았던 것이다.<sup>49)</sup> 사료 B-2는 이러한 타협안의 하나였던 봉선의례에 왜국 측이 참가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시세조라는 시기의 애매함과 『일본서기』 찬자의 ‘送使’일 가능성에 대한 언급 때문에 왜국 측의 봉선의례 참가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지만,<sup>50)</sup> 언급하였듯이 664년 사절단과의 협상에서 봉선의례의 참가가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守君大石과 坂合部連石積 등은 봉선의례에 참가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한편 사료 B에서도 백제계 관료들이 동행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사료에 나오는 禰軍은 한일 양국 사료에 모두 등장하는 유일한 백제계 관료로, 664년과 665년 두 차례의 사절단에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유인원이 姚州로 유배된 이후에는 670년 신라에 억류되기까지 웅진도독부의 실질적 통수권을 장악한 인물로 파악되기도 한다.<sup>51)</sup> 이러한 인물이 도일한 이유는 백제부흥군을 지원한 왜국과의 관계개선이 최우선 과제였기 때문일 것이다. 당시 왜국은 부흥운동을 주도하였던 복신의 아들에게 鬼室集斯에게 관위를 주었고 백제 남녀 4백여 인을 近江國의 神前郡에서 살게 하였으며,<sup>52)</sup> 또한 달솔 答怱春初와 億禮福留 등을 보내

49) 이성제 역시 천자의 사자도 문서도 아님을 불만으로 삼았던 왜국에 대해 당은 불만을 해소해 주기 위해 지방관인이었던 유덕고를 파견한 것으로, 상대국의 불만을 해소시키고 참여를 유도해나가는 방식으로 당은 사전에 봉선 참가를 의도하였다고 파악하고 있다(이성제, 「唐 高宗의 泰山封禪과 고구려의 대응을 둘러싼 몇 가지 문제」, 213쪽).

50) 松田好弘은 守君大石은 백촌강 전투에서 포로로 잡혀 있다가 간 것이고, 境部連石積은 견당유학생으로 당에 체류하고 있다가 봉선에 참가한 것으로 보았다. 시세조에 나오는 吉士岐彌, 吉士針間은 유덕고 등의 送使 역할만을 수행했기 때문에 왜국에서 파견된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봉선의례의 참가를 요구하기 위해 파견된 유덕고의 견사는 성공하지 않았다고 보았다(松田好弘, 「天智朝の外交について」, 『立命館文學』, 415·416·417(1980), 107-110쪽). 新藏正道는 봉선의례와 직접적으로 결부시키고 있지 않지만, 당의 2회에 걸친 사신파견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응하는 것이 득책이라고 생각하여 ‘송사’라는 형태를 띤 답례사로 守君大石을 파견한 것으로 보고 있다(新藏正道, 「白村江の戰の後天智朝外交」, 13쪽).

51) 이도학, 「웅진도독부의 지배조직과 대외정책」, 93쪽.

52) 『일본서기』 권27 천지 4년 2월조.



長門國과 筑紫國에서 축성하게 하여 방어체제를 구축하는 등<sup>53)</sup> 망명 백제인들을 흡수하여 지배체제의 강화를 도모하는데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이들과 결을 달리하여 당의 관료로 기용된 백제계 관료들의 입장에서는 비록 당이 주재하였지만 신라와의 회맹을 통해 백제고지가 안정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왜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신라를 압박하려는 계획을 가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당(웅진도독부)의 대일정책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한편으로 백제계 관료들에 대한 왜국 측의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667년에 들어와 웅진도독부는 다시 사신을 파견하였다. 다음의 사료이다.

- C-1. (천지 6년, 667년) 11월 정사삭 을축(9일)에 백제진장 劉仁願이 웅진도독부 熊山縣令 上柱國 司馬 法聰 등을 보내 大山下 境部連石積 등을 筑紫都督府로 돌려보냈다. 기사(13일)에 司馬 法聰 등이 일을 마치고 돌아갔다. 小山下 伊吉連博德, 大乙下 笠臣諸石을 송사로 삼았다.<sup>54)</sup>
2. (천지 7년, 668년) 봄 정월 무신(23일)에 송사 博德 등이 복명하였다.<sup>55)</sup>

사료 C-1은 백제진장 유인원이 사마 법충으로 하여금 境部連石積을 축자도독부로 보냈다는 내용이다. 境部連石積은 665년 봉선의례에 참가하였던 坂合部連石積인데,<sup>56)</sup>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이때의 파견주체가 백제진장 유인원이고 이에 대한 왜국 측이 송사를 파견한 것이다. 이는 백제진장의 私使라고 하여 입경시키지 않고 돌려보냈던 664년과 비교해보면 달라진 왜국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특히 법충의 체류가 4일에 불과하였고, 그의 귀국 시에 伊吉連博德 등을 웅진도독부로 파견하고 있는 점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와 관련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즉 고구려에서는 연개소문이 사망하고 그의 장남인 男生이

53) 『일본서기』 권27 천지 4년 8월조.

54) 『일본서기』 권27 천지 6년 11월조.

55) 『일본서기』 권27 천지 7년 정월조.

56) 日本古典文學大系, 『日本書紀』 下(東京: 岩波書店, 1965), 319쪽 주 48.

권력을 장악하였지만 동생인 男建·男産과의 대립과 반목으로 정치적 내분이 확대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구려는 왜국에 666년 정월과 10월에 사신을 파견하였다.<sup>57)</sup> 먼저 정월의 사신은 前部 能婁로, 연개소문의 사후 권력을 장악한 남생이 연개소문의 사망사실 및 이전처럼 양국관계의 유지를 바라는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파견한 것이었다.<sup>58)</sup> 10월에는 乙上 奄鄒 등을 파견하였는데, 이때의 사신 파견은 남생과의 권력다툼에서 승리한 남건이었다.<sup>59)</sup> 이때의 목적은 국내성으로 달아난 남생이 그의 아들인 獻誠을 보내 당에 구원을 요청하는 등 당의 고구려 공격이 급박해오자 이를 왜국에 알려 지원을 받고자 함이었을 것이다.<sup>60)</sup> 고구려의 이러한 요청에 왜국 측이 어떠한 대응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사료 C-2에 보이듯이 伊吉連博德을 파견한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직접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 IV. 백제계 주도의 대외정책 : 668~671년의 시기

668년에 들어오면 웅진도독부의 대외외교 양상에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는 당의 고구려 정벌과 관련된 전시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668년 4월 이후로는 웅진도독부의 이름이 아닌 ‘백제’의 이름으로 사신을 파견하고 있다.

- D-1. (천지 7년, 668년) 여름 4월 을묘삭 경신(6일)에 백제가 末都師父 등을 보내 조를 바쳤다. 경오(16일)에 末都師父 등이 일을 마치고 돌아갔다.<sup>61)</sup>
2. (천지 10년, 671년) 봄 정월 신해(13일)에 백제진장 유인원이 李守眞을

57) 『일본서기』 권27 천지 5년 정월조 및 10월조.

58) 연민수 외, 『역주일본서기』 III, 353쪽 주 148 : 김은숙, 「백제부흥운동 이후 天智朝의 국제관계」, 160쪽.

59) 『삼국사기』 권22 「고구려본기」 10 보장왕 하 25년 6월.

60) 정효운, 「天智朝의 對外政策에 대한 一考察」, 231쪽 : 김은숙, 「백제부흥운동 이후 天智朝의 국제관계」, 161쪽.

61) 『일본서기』 권27 천지 7년 4월조.

보내 표를 올렸다.<sup>62)</sup>

3. (천지 10년, 671년) 2월 무신삭 경인(23일)에 백제가 臺久用善을 보내 조를 올렸다.<sup>63)</sup>
4. (천지 10년, 671년) 6월 병인삭 기사(4일)에 백제의 三部 사신이 요청한 군사에 관해 선언이 있었다. 경진(15일)에 백제가 「眞子를 보내 조를 올렸다.<sup>64)</sup>
5. (천지 10년, 671년) 7월 병신삭 병오(11일)에 唐人 李守眞 등과 백제의 사신들이 같이 일을 마치고 돌아갔다.<sup>65)</sup>
6. (천지 10년, 671년) 11월 갑오삭 계묘(10일)에 對馬國司가 筑紫大宰府에 보고하기를 “...당의 사신 郭武棕 등 600여 인과 송사 沙宅孫登 1천4백인 합해 2천인이 배 47척에 타고 比知島에 정박하고는 ...<sup>66)</sup>

위 사료는 668년부터 신라의 총공제가 시작되는 671년까지의 웅진도독부의 대외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주목되는 것은 파견주체가 백제라고 기록된 점이다. 다만 D-2의 이수진을 보냈다는 백제진장 유인원은 668년 고구려 정벌의 役에서 暹留시킨 죄로 姚州로 유배되기 때문에 이때의 파견주체는 유인원이 될 수 없다.<sup>67)</sup> 이에 대해 이때의 백제사를 백제유민이 파견한 것으로 파악하고, 백제유민과 웅진도독부 간의 신라를 견제한다는 공통의 대외정책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유인원의 이름을 빌려 이수진을 파견하였다고 본 견해가 있다.<sup>68)</sup> 그러나 이미 지적되었듯이 백제유민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sup>69)</sup> 이 시기 백제사의 파견주체를 당과 대항하는 백제유민으로 보기 어렵다.

---

62) 『일본서기』 권27 천지 10년 정월조.

63) 『일본서기』 권27 천지 10년 2월조.

64) 『일본서기』 권27 천지 10년 6월조.

65) 『일본서기』 권27 천지 10년 7월조.

66) 『일본서기』 권27 천지 10년 11월조.

67) 『자치통감』 권20 당기17 고종 총장 원년 8월조.

68) 鈴木靖民, 『日本の古代國家形成と東アジア』, 199-202쪽.

69) 정효운, 「天智朝의 對外政策에 대한 一考察」, 235쪽.

그렇다면 D-2의 유인원 파견 기사는 어떻게 봐야 할까. 이수진의 파견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의 귀국기사가 있기 때문에 이수진의 파견은 사실로 보인다. 이 시기에 왜국 측이 유인원의 유배를 몰랐다면 그의 이름을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왜국이 670년에 河内直鯨 등을 건당사로 파견하고 있기 때문에,<sup>70)</sup> 왜국은 668년에 유인원이 유배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 『일본서기』 편찬자의 원 사료에 대한 무비판적인 채용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웅진도독부가 당 본국인을 파견했을 경우에는 백제진장 유인원이 관계되었기 때문에 당 본국인인 이수진 역시 그러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일본서기』 찬자가 그대로 사용했을 가능성인데, 이는 추정으로만 남겨두고자 한다. 다만 그가 당 본국인이라는 점에 주목한다면, 이수진의 파견은 사료 D-6의 곽무중 등 2천여 명의 도왜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671년 11월 도왜한 2천여 명 중 沙宅孫登이 거느린 1천4백 명은 백촌강 패전에서 발생한 왜군 포로이고, 곽무중 등의 6백여 명은 사절 및 포로를 감시하고 호송한 唐人과 그 지휘 하의 백제인이었다고 한다.<sup>71)</sup> 이 견해가 타당하다면 이수진은 왜국인 포로송환을 조건으로 하여 왜국과 협상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가 1월에 파견되어 6월에 귀국하는 것으로 보아 협상이 생각처럼 원활했던 것 같지는 않다.

당인 이수진과 왜국 간의 협상이 난항이었던 것은 신라의 대외전략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신라가 656년에 사신을 파견한 지 12년 만인 668년

70) 『일본서기』 권27 천지 8년 시세조 및 『신당서』 권220 왜국전. 670년 河内直鯨의 파견 목적에 대해 당이 왜국을 공격할 것을 두려워 한 왜국이 당에 종속을 표명한 것으로 보는 견해(김은숙, 「백제부흥운동 이후 天智朝의 국제관계」, 173쪽), 당으로 끌려간 왜국 병사들을 송환하는 임무였던 것으로 보는 견해(연민수 외, 『역주일본서기』 3, 366쪽 주 273번), 고구려 멸망 후 당의 왜국 공격 움직임을 파악한 왜국이 당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파견한 것으로 보는 견해(松田好弘, 「天智朝の外交について」, 116쪽) 등이 있다.

71) 直木孝次郎, 「百濟滅亡後の國際關係」, 『日本古代の氏族と國家』(東京: 吉川弘文館, 2005), 98쪽.

9월 12일에 김동업을 파견하였던 것이다.<sup>72)</sup>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신라의 사신파견 시기와 왜국 측의 반응이다. 즉 신라는 고구려의 멸망이 거의 가까워지자 당의 銳鋒이 한반도의 지배권을 장악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 자국을 향할 것임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왜국과의 관계개선을 목적으로 사신을 파견한 것이다. 당의 패전국이었던 왜국에게 신라는 자국에 떠도는 풍문 ‘당이 배를 수리하는 것은 걸으로는 왜국을 정벌한다고 하지만 실체는 신라를 치고자 하는 것’<sup>73)</sup>을 전달하여 당이 고구려를 정벌한 후에는 신라를 공격해 올 것임을 알리고, 이러한 상황이 현재 당과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왜국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을 것이다. 왜국은 664년부터 웅진도독부를 내세운 당의 적극적 태도에 견당사를 파견하는 등 우호관계를 형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당에 대한 경계심으로 北九州를 중심으로 한 방위체계의 강화에 힘을 쏟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668년 신라가 사신을 파견한 것이다. 이 신라사의 도왜는 왜국 측이 나아가야 할 대외관계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계기로 작용한 듯하다. 이는 신라사에 대한 왜국 측의 우대에서도 알 수 있는데, 김유신과 신라왕에게 각각 배 한척과 비단 50필 등을 보내고 道守臣麻呂 등을 사신으로 보내고 있다.<sup>74)</sup> 신라의 당에 대한 긴장감과 왜국의 당에 대한 경계심이 양국의 관계를 회복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신라의 대왜접근책은 당의 입장에서는 변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당은 신라와 왜국의 공조를 막기 위해 당인인 이수진을 파견하여 왜국인 포로송환을 전제로 한 협상을 진행하였던 것이다. 왜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포로송환도 중요한 문제였지만, 한반도 전황은 자국의 안보상황과 직결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을 것이다. 아마도 당의 요구는 신라와의 관계단절을 전제로 한 왜국의 군사원조였을 가능성이 높고 왜국 측은 포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형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을 것이다.<sup>75)</sup>

72) 『일본서기』 권27 천지 7년 9월조.

73)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7 문무왕 하 答薛仁貴書.

74) 『일본서기』 권27 천지 7년 9월조 및 11월조.

75) 新藏正道, 「‘白村江の戦’の後天智朝外交」, 23쪽; 直木孝次郎, 『日本古代の氏族と國家』, 100쪽.

한편 이 시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이미 언급하였듯이 668년 이후에는 ‘백제’의 이름으로 사신이 파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Ⅲ장에서 보았듯이 백제진장이 보낼 경우 당 본국인도 같이 파견되었다. 그러나 사료 D에서는 唐人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고, 특히 신라의 총공세가 시작되는 671년에는 ‘백제’가 보냈다고 기록된 경우가 3차례나 나온다.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한 것으로 보아 이 시기의 사신단은 웅진도독부 소속의 백제계 관료가 주도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들이 ‘백제’국명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이는 한반도의 전황과 관련이 깊다고 생각된다. 최종적으로는 왜국으로부터의 지원과 지지를 받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덧씌워져 있는 친당적 이미지를 제거하고 백제와 왜국이 전통적으로 우호관계에 있었음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먼저 668년 末都師父의 파견부터 살펴보면 이때의 목적은 아마도 당·신라의 고구려 공격을 둘러싼 한반도의 전황을 왜국에 알리는 정보제공의 차원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당의 의지를 반영한 백제진장이 웅진도독부를 이용하여 왜국이 고구려를 원조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로 파견하였다고 본 견해도 있다.<sup>76)</sup> 그러나 말도사부의 파견주체가 백제진장이 아닌 ‘백제’였다는 점에서 본다면 이때의 견사는 백제계 관료에 의해 파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백제계 관료들은 일·당 간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던 왜국 측에게 당과 고구려와의 전황상황을 알리면서 이전의 동맹관계를 회복하려는 아직은 소극적 차원의 목적에서 파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고구려는 왜국 측의 군사지원을 받고자 668년 7월에 사신을 재차 파견하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9월에 멸망하였다.

백제계 관료들은 671년 2월에 사료 D-3에 보이는 臺久用善을 파견하였다. 그의 파견은 670년에 이루어진 신라의 백제고토 공격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신라가 대규모 군사를 동원하여 백제고토의 82

76) 김은숙, 「백제부흥운동 이후 天智朝의 국제관계」, 166쪽 : 新藏正道, 「白村江の戰」の後天智朝外交」, 17쪽.

성을 함락시키고 백제유민을 신라로 사민시키는 등<sup>77)</sup> 백제고토에 대한 영역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자, 臺久用善을 파견하여 군사지원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한 왜국 측의 입장은 사료 D-4에서 알 수 있다. 여기서의 선언이란 백제계 관료들의 군사지원 요청을 공개적으로 불가함을 공포함으로써 한반도 전황에 대한 개입불가를 공식화하였던 것이다. 백제계 관료들은 그 달에 다시 羿眞子를 파견하였으나, 왜국의 한반도 전황에 대한 개입불가 방침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사신들은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갔다. 이후 신라가 백제고토에 所夫里州를 설치하여 장악하게 되자 羿眞子를 마지막으로 백제계 관료들의 대왜외교는 소멸되었다.

그렇다면 이 백제계 관료들을 주도한 주체는 누구였을까? 유인원이 姚州로 유배된 이후 백제진장으로 부임해 온 당 본국인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668년 8월 이후로 웅진도독부의 통수권을 담당할 인물로는 부여용 밖에 없다.<sup>78)</sup> 이에 대해 부여용의 웅진도독부 체류기간을 664년부터 668년에 이르는 약 5년간으로 파악한 후, 부여용이 봉선의례 참석을 위해 수개월간 떠나있기도 했고 그 이전에는 유인제가 주도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운영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sup>79)</sup> 그러나 백제부흥운동의 주도세력들이 망명하여 천지조에서 우대를 받고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본다면 부여용은 대왜외교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의도적으로 전면에 나서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겠다. 다만 664년 4월부터 웅진도독부의 대왜외교가

77)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 6 문무왕 10년 7월조.

78) 조범환 역시 668년 8월 유인원이 떠난 이후 웅진도독부의 군대를 부여용이 통솔하였고, 고구려 정벌 이후 백제고토에서 그의 위상이 더 높아졌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조범환, 「熊津都督 扶餘隆의 對新羅政策에 대한 검토」, 『한국고대사탐구』, 25(2017), 161-162쪽).

79) 박지현, 「백강구 전투 이후 부여용의 행적과 웅진도독부의 운영」, 『역사와 현실』, 105(2017). 한편 박지현은 웅진도독부의 기틀을 유인제가 다진 점, 유인원이 웅진도독부의 대외관계에 직접 나선 점, 웅진도독부가 고구려 정벌을 위한 당의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웅진도독부의 운영은 유인제와 유인원 등의 당인 관료들과 그와 친밀한 관계에 있던 백제계 관료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박지현, 같은 논문, 261-267쪽).



## 웅진도독부의 대외정책 검토

진행되었지만 664년 10월 이후에 부여음이 웅진도독에 제수된 점, 그리고 665년의 유덕고 대외파견은 당 본국이 주관하였다는 점, 667년 사마 법충의 파견은 백제진장 유인원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부여음이 대외외교를 주재하였을 가능성은 668년 이후로 보이지만, 그때에도 부여음은 전면에 나서지 않은 채 이면에서 ‘백제’라는 이름으로 대외외교를 주재한 것으로 생각된다. 신라와 왜국이 668년에 들어와 관계를 회복한 점도 부여음이 전면에 나서지 않은 한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런데 부여음은 백제고토에서 유인원·유인케 등이 돌아가자 그 역시 신라를 두려워하여 곧 京師로 돌아갔다고 한다.<sup>80)</sup> 경사로 돌아간 시기에 대해서는 668년,<sup>81)</sup> 670년을 전후한 시기,<sup>82)</sup> 675년 2월 이후<sup>83)</sup> 등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신라의 백제고토에 대한 총공세에 시작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한 대외외교가 결국은 왜국의 한반도 전향 개입불가 선언으로 이어지자 671년 6월 이후의 어느 시점에 경사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한다. 즉 부여음은 백제계 관료들을 동원하여 유인원의 요주 유배 이후의 대외외교 정책을 추진, 왜국의 군사적 지원을 받아 신라의 압박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상의 웅진도독부의 대외관계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대		내용	비고
664 년	4월	百濟鎮將 劉仁原, 朝散大夫上柱國 郭務悰 등 30인과 백제 佐平 禰軍 등 100여인을 보내 表 函과 獻物을 바침	『善隣國寶記』에 인용된 「海外國記」
	12월	곽무종 일행 귀국	

80)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 6 의자왕 20년조 및 『자치통감』 권202 당기 18 고종 의봉 2년조.

81) 박지현, 「백강구 전투 이후 부여음의 행적과 웅진도독부의 운영」, 263-264쪽.

82) 양기석, 「百濟扶餘隆 墓誌銘에 대한 檢討」 『國史館論叢』, 62(1995), 145-146쪽.

83) 김영관, 「百濟 滅亡後 扶餘隆의 行蹟과 活動에 대한 再考察」, 『백제학보』, 7(2012), 105-106쪽.

665 년	7월	당의 사신 朝散大夫 沂州司馬 上柱國 劉德高와 右戎衛郎將 上柱國 百濟禰軍, 朝散大夫 柱國 郭務棕 등 254인이 대마에 도착	
	10월	왜국, 유덕고 일행을 위해 兎道에서 열병	
	11월	유덕고 등에게 향응을 베풀	
	12월	유덕고 등에게 물건 하사. 유덕고 일행 귀국	
	이 해	小錦 守君大石, 小山 坂合部連石積, 吉士岐彌, 吉士針間 등을 당에 파견	『일본서기』 분주에서는 유덕고의 送使일 가능성 제기
667 년	11월	9일 百濟鎮將 劉仁願, 웅진도독부 熊山縣令 上柱國 司馬 法聰을 보내 大山下 境部連石積들을 筑紫都督府로 돌려 보냄	
		13일 사마법총 귀국. 小山下 伊吉連博德, 太乙下 笠臣諸石을 송사로 보냄	
668 년	4월	백제, 末都師父를 보내 조를 바침	
671 년	1월	백제진장 유인원이 李守眞을 보내 표를 올림	
	2월	백제, 臺久用善을 보내 조를 올림	
	6월	4일 왜국, 백제의 三部의 사신이 요청한 군사에 관한 선언	
		15일 백제, 羿眞子를 보내 조를 올림	
	7월	唐人 李守眞과 백제의 사신들 귀국	
11월	唐使 郭務棕 등 6백여 인과 송사 沙宅孫登 등 1천4백인, 모두 2천인이 배 47척에 타고 도왜		

## V. 맺음말

이상으로 웅진도독부의 대외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웅진도독부는 당이 백제를 멸망시킨 후 백제고토의 지배를 위해 설치한 기미지배체제로, 당은 백제 측의 수장 및 토착세력들을 웅진도독 및 장사·현령으로 임명하는 한편 당 본국인인 유인궤와 유인원을 진장, 낭장 등의 직책으로 백제고토에 머무르게 하였다. 웅진도독부는 664년 4월 광무종 등 唐人和 백제계 관료로 구성된 사신단을 왜국에 파견하였는데, 그 목적은 대고구려정벌을 위한 후방기지의 안정화 및 666년에 열리는 태산 봉선의례에 참석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 사신단에 대해 왜국 측은 天子의

## 웅진도독부의 대외정책 검토

사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신단의 入京을 공개적으로 불허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당시 최고 실권자였던 中臣鎌足으로 하여금 이면협상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 협상의 결과 당은 왜국 측의 요구였던 당 천자의 이름으로 665년에 사신단을 파견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왜국 측은 당의 요구였던 666년의 태산봉선 의례에 사신단을 파견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668년 이후 백제진장이었던 유인원이 姚州로 유배되자 웅진도독부의 대외정책은 백제계 관료들이 추진하였다. 이들은 대외외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웅진도독부가 아닌 ‘백제’라는 모국 명을 사용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내었고, 671년에는 신라의 충공세를 막기 위해 왜국에 군사외교를 추진하였다. 이 군사외교는 왜국이 한반도 전황에 대한 개입불가를 공식적으로 선포함으로써 무위로 돌아갔고, 결국 신라에 의해 웅진도독부는 한반도에서 축출되었다. 한편 668년 이후에 추진된 대외외교는 표면적으로는 백제계 관료들이 주도하였지만 그 이면에는 부여융의 존재가 있었다. 백제부흥운동을 주도한 세력과 결을 달리하였고 이들이 천지조에서 일정정도의 활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전면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웅진도독부 내에서 대외외교를 담당하였던 백제계 관료들은 ‘친당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이들 역시 기본적으로 ‘백제인’이었다. 왜국에 대한 군사지원 요청은 그러한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시간강사, museo99@hanmail.net

주제어(Key Words):

웅진도독부(Ungjin Dodok-bu), 백제진장 유인원(Jinjang of Baekje Ryu Inwon), 친당적 백제계 관료(A pro-Tang Baekje officials), 왜국(Japan), 부여융(Buyeo Yung)

투고일: 2021.04.19, 심사일: 2021.04.30, 게재확정일: 2021.05.03.

<국문초록>

웅진도독부의 대외정책 검토

박민경

당은 백제고토에 웅진도독부를 설치하였다. 웅진도독부는 664년에 고구려정벌을 위한 후방기지의 안정화 및 666년에 열리는 태산봉선에 왜국 참가를 목적으로 하여 왜국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협상의 결과 웅진도독부(당)는 왜국의 요청대로 당 천자의 이름으로 665년에 사신단을 파견하였고, 왜국은 당의 요구였던 666년의 봉선의례에 참가하였다. 한편 668년 이후의 대외관계는 웅진도독부 소속 백제계 관료들이 주도하였다. 이들은 후 신라와 당이 전쟁으로 치닫게 되면서 웅진도독부 내에 당 세력의 공백이 생기자, 자신들의 정체성이 ‘백제’에 있음을 내세우며 왜국과의 군사외교를 재개하였다. 이들은 왜국에 군사지원을 요청으로써 신라로부터 벗어나려는 백제계 관료 나름의 ‘貳心’을 드러내는 계기로 삼았던 것이다. 그러나 왜국이 한반도 전황 개입불가 선언을 함으로써 결국 웅진도독부 소속 백제계 관료들의 대외외교는 실패하고 말았다.

<Abstract>

An examination on the Japan Policy of the Ungjin Dodok-bu

Park, Minkyung

After Baekje was overthrown, Tang established Ungjin Dodok-bu at the native land of Baekje. Ungjin Dodok-bu tried to stabilize the native land of Baekje through the postwar restoration of Baekje in order to conquer Goguryeo. At the same time, Ungjin Dodok-bu also tried to improve relationship with Japan by inducing attendance Taishan Bongseon Ritual in 666. In 664, Jinjang sent both Tang's own official Gwak Mujon and Officials of Baekje decent to Japan. In 665, as a result, Tang sent representatives as requested and Japan attended Bongseon Ritual in 666 in return. Since 668, however, the foreign policy with Japan had been continued by Baekje official decent. The officials of Baekje decent focused on the recovering military relationship with Japan as people of Baekje. But, unfortunately, their foreign policy with Japan came to end in failure since Japan announced the impossibility to involve any war in Korean peninsula.

## 참 고 문 헌

### 1. 사료

『三國史記』, 『舊唐書』, 『新唐書』, 『資治通鑑』, 『冊府元龜』, 『日本書紀』, 『續日本記』

### 2. 역주서

김현구, 박현숙, 우재병, 이재석 공저, 『일본서기 한국관계기사연구』 (서울: 일지사, 2003).

徐榮洙, 『國譯 中國正史朝鮮傳』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86).

연민수 외, 『역주일본서기』 I·II·III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3).

李丙燾, 『國譯 三國史記』 (서울: 乙酉文化社, 1977).

韓國精神文化研究院, 『譯註 三國史記』 1~5 (성남: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7).

坂本太郎 外 校注, 日本古典文學大系, 『日本書紀』 上·下 (東京: 岩波書店, 1965).

### 3. 단행본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백제부흥운동사』 (서울: 서경, 2004).

김영관, 『백제부흥운동연구』 (서울: 서경, 2005).

노중국, 『백제부흥운동사』, (서울: 일조각, 2003).

山尾幸久, 『古代の日朝關係』 (東京: 塙書房, 1989).

直木孝次郎, 『日本古代の氏族と國家』 (東京: 吉川弘文館, 2005).

鈴木靖民, 『日本の古代國家形成と東アジア』 (東京: 吉川弘文館, 2011)

4. 논문

- 김수미, 『熊津都督府研究』, 전남대 박사학위 논문, 2007.
- 김수미, 「扶餘隆 도독 체제 웅진도독부의 통치구조」, 『역사학연구』, 32(2008).
- 김수미, 「당과 백제 유민의 웅진도독부 인식의 변화」, 『한국민족문화』, 42(2012).
- 김수태, 「웅진도독부의 백제부흥운동」, 『백제부흥운동사』 (서울: 서경, 2004).
- 김수태, 「웅진도독부의 백제부흥운동 재론」, 『백제학보』, 25(2018).
- 김영관, 「취리산회맹과 당의 백제 고토 지배정책」, 『취리산회맹과 백제』 (서울: 혜안, 2010).
- 김영관, 「百濟 滅亡後 扶餘隆의 行蹟과 活動에 대한 再考察」, 『백제학보』, 7(2012).
- 김은숙, 「백제부흥운동 이후 天智朝의 국제관계」, 『일본학』, 15(1995).
- 노중국, 「復興百濟國의 성립과 몰락」, 『백제부흥운동사연구』 (서울: 서경, 2004).
- 박지현, 「웅진도독부의 성립과 운영」, 『한국사론』, 59(2013).
- 박지현, 「백강구 전투 이후 부여융의 행적과 웅진도독부의 운영」. 『역사와 현실』, 105(2017).
- 방향숙, 「百濟故土에 대한 唐의 支配體制」, 『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 上 (서울: 一潮閣, 1994).
- 방향숙, 「扶餘隆의 정치적 입지와 劉仁軌」, 『한국고대사탐구』, 25(2017).
- 양기석, 「百濟扶餘隆 墓誌銘에 대한 檢討」, 『國史館論叢』, 62(1995).
- 연민수, 「개신정권의 성립과 동아시아 외교」, 『고대한일관계사』 (서울: 혜안, 1998).
- 연민수, 「7세기 동아시아 정세와 왜국의 대외정책」, 『신라문화』, 24(2004).



- 이도학, 「웅진도독부의 지배조직과 대외정책」, 『백산학보』, 34(1987).
- 이재석, 「7세기 왜국의 대외 위기감과 출병의 논리」, 『왜국연구사연구』, 26(2007).
- 이재석, 「7세기 후반 백제부흥운동의 두 노선과 왜국의 선택」, 『백제연구』, 57(2013).
- 정효운, 「天智朝의 對外政策에 대한 一考察」, 『韓國上古史學報』, 14(1993).
- 조범환, 「熊津都督 扶餘隆의 對新羅政策에 대한 검토」, 『한국고대사탐구』, 25(2017).
- 池内宏, 「百濟滅亡の後動亂及び唐·羅·日三國の關係」, 『滿鮮史研究』 上 第二冊 (東京: 吉川弘文館, 1960).
- 鬼頭清明, 「7世紀後半の國際政治史試論」, 『朝鮮史研究會論文集』, 7(1970).
- 鈴木英夫, 「百濟救援の役について」, 『日本古代の政治と制度』 (東京: 續群書類從完成會, 1985).
- 鈴木靖民, 「七世紀東アジアの「リ」と「革」」, 『新版 古代の日本 アジアから見た古代日本』 (東京: 角川書店, 1992).
- 松田好弘, 「天智朝の外交について」, 『立命館文學』, 415·416·417(1980).
- 新藏正道, 「‘白村江の戰’の後天智朝外交」, 『史泉』, 71(1990).